

‘월드컵 활약’ 손흥민·조현우 자카르타AG 와일드카드 합류

황희찬·황희찬·이승우도 발탁...백승호·이강인은 제외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활약한 손흥민(26·토트넘)과 골키퍼 조현우(27·대구FC)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와일드카드(24세 이상)로 합류한다.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황희찬(26·감바 오사카)도 태극마크를 단다. 김학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16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손흥민, 조현우, 황희찬이 포함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최종엔트리 20명을 발표했다.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선수들만 출전이 가능하지만 3명에 한해서 와일드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김 감독은 러시아월드컵에서 제 몫을 한 손흥민과 조현우 선발로 금메달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손흥민의 경우, 만 28세 전에 군 복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는 해외에서 뛰 수 없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4주 기초 군사훈련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다.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할 수 있다. 유럽 진출을 기대하는 조현우도 같은 맥락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멕시코 독일과의 조별리그 2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고 조현우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나서 신들린 선방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황희찬은 올 시즌 J리그에서 7골을 넣으며 부활했다. 러시아월드컵에서 뒀 황희찬(잘츠부르크),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도 공격진에 이름을 올려 손흥민과 함께 나선다. 수비수 중에서는 아쉽게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한 김민재(전북 현대)의 이름이 눈에 띈다. 월드컵 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명단

- ◆GK = 조현우(대구FC) 송범근(전북 현대)
- ◆DF = 김문환(부산 아이파크) 황현우(FC서울) 정태욱(제주 유나이티드) 김민재(전북 현대) 김진아(인천 유나이티드) 조유민(수원FC) 이시영(성남FC)
- ◆MF = 이승모(광주FC) 장원호(전북 현대) 김건웅(울산 현대) 황인범(아산무궁화) 김정민(FC리퍼블릭) 이진현(포항 스틸러스)
- ◆FW = 손흥민(토트넘) 황희찬(감바 오사카) 나상호(광주FC) 황희찬(잘츠부르크) 이승우(베로나)

종엔트리 승선이 유력했지만 대회 한 달여를 앞두고 부상으로 낙마했다.

발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유망주 이강인(발렌시아)은 결국 제외됐다. 지난날 소집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던 백승호(지로나)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린다. 축구는 18일 공식 개막식에 앞서 시작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 E조에 속했지만 최근 조 추첨에서 참가국이 누락된 것이 확인돼 다시 추첨을 할 예정이다.

한국 축구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뉴시스

추신수, 51G 연속 출루·시즌 18호 홈런 전반기 마감

정정된 베이브 루스와 타이 기록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51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하며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51경기 연속 출루는 1923년 베이브 루스의 기록과 타이 기록이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원정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솔로 홈런을 포함해 3타수 2안타 1타점 2볼넷을 기록했다.

대기록은 1회초 첫 타석부터 나왔다. 추신수는 볼티모어의 선발 미구엘 카스트로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볼을 속아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이었다.

1923년 루스의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이 50경기 아닌 51경기로 확실히 됐다. 베이브 루스의 기록에 따르면 타수가 하나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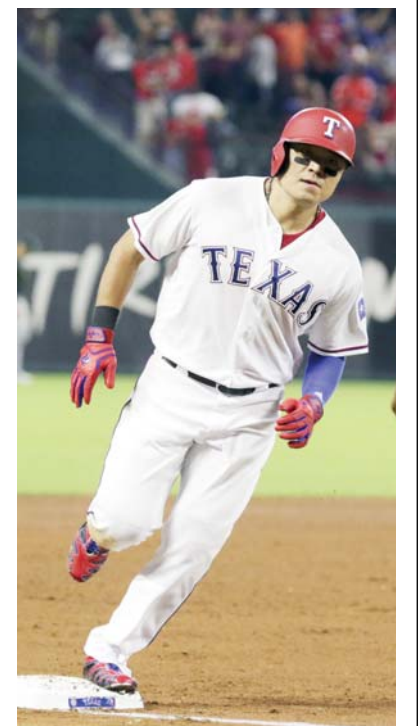
볼넷만 있었던 루스의 51경기째 경기가 누락됐다. 때문에 루스의 연속 출루 기록은 50경기에서 1경기 더 늘어난 51경기로 정정됐다.

추신수는 2회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났지만 5회 중전안타를 뽑아낸 데 이어 7회에는 마이크 라이트 주니어가 던진 체인지업을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18호 솔로 홈런을 뽑아냈다.

추신수는 마지막 타석에서도 출루에 성공했다. 볼티모어의 마무리 투수인 잭 브리튼을 상대로 7구째 볼을 풀러내 볼넷으로 출루한 추신수는 이후 대주자 카를로스 토치와 교체됐다.

추신수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 하게 됐다. 시즌 0.238의 타율에 18홈런 43타점, OPS 0.911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추신수의 맹활약에는 달리 텍사스는 볼티모어에게 5-6으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아메리칸리그 서



부지구 최하위 텍사스와 4위 LA 에인절스의 승차는 8경기 차로 벌어졌다.

뉴시스

프로야구 순위 싸움보다 뜨거워질 후반기 관전 포인트?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가 짧았던 휴식을 끝내고 17일 후반기에 돌입한다. 전반기보다 더욱 뜨거워질 후반기에 달성될 주요 기록들을 살펴봤다.

팀 기록을 살펴보면, 올 시즌 독보적인 단독 선두에 올라있는 두산이 가장 눈에 띈다. 두산은 현재 88승, 520타점으로 두산이 기록했던 종전 시즌 최다승(2016년 93승)과

최다 득점, 안타, 루타 등 타격 전면에 걸쳐 새로운 기록 행진도 눈길을 끌고 있다.

팀 홈런 기록은 역시 SK가 압도적이다. 현재 146홈런으로 2위 롯데의 116홈런보다 30홈런이나 앞서 있는 SK는 지난해 SK가 작성한 역대 한 시즌 팀 최다 홈런인 234홈런 기록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팀 홈런 1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최정은 현

초 3년 연속 300루타 달성을 노린다.

KIA 최영우는 통산 2번째 6년 연속 20홈런, 6년 연속 150안타 기록에 각각 7홈런, 43안타를 남겨두고 있으며, NC 나성범 롯데 이대호와 함께 역대 최초 4년 연속 1700타 기록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73타점을 기록 중인 이대호는 역대 최초 5년 연속 100타점 달성에도 접근해 있다.

한화 정우람은 KBO 리그를 뜨겁게 달군 신인 KT 강백호는 데뷔 첫 해 최다 홈런 기록에 도전한다. 강백호는 현재 16홈런으로 홈런 부문 전체 공동 15위, 팀내에서는 3위에 올라있다.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은 1996년 현대 박재홍의 30홈런으로 해당 기록 경신까지는 15개가 남아 있으며, 고졸 신인 최다인 1994년 LG 김재현의 기록한 21홈런에는 6홈런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체 일정의 61.3%인 441경기를 소화한 2018 KBO리그는 7월 13일 기준 누적 관중 515만4159명, 경기당 평균 1만687명의 팬들이 야구장을 찾았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3년 연속 800만 관중은 물론 지난해 840만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BO 리그는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로 다시 한 번 휴식기를 갖는다. 뉴시스

김학범 감독 “손흥민, 합류 시기 미정...최대한 빨리”

“무더운 인도네시아 날씨 적응할 시간 필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학범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손흥민(토트넘)이 조별리그를 뚫을 수 있을까.

김학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16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손흥민, 조현우(대구), 황희찬(감바 오사카)가 포함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

팀 최종엔트리 20명을 발표했다.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선수들만 출전이 가능하지만 3명에 한해서 와일드카드(24세 이상)를 활용할 수 있다. 손흥민 황희찬 등 공격수로 2명과 수문장 1명으로 와일드카드를 구성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

맹(FIFA) 주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경우 소속팀의 허가가 없다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다.

김 감독은 손흥민과 관련해 “분명히 온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속 조율하고 있다. 손흥민을 제외할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팀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분명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합류 시점이 늦으면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최대한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토트넘 측도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시즌 개막과 맞물리기 때문에 정확한 합류 시기는 꼼꼼하게 살피는 중이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해 지난해 러시아월드컵에서 2골을 넣는 등 맹활약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4주 기초 군사훈련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다. 뉴시스

하나된 남북 탁구, 웃음 넘친 첫 합동 훈련

코리아오픈 앞두고 복식 호흡 집중 점검

국제탁구연맹(ITTF) 코리아오픈을 위해 손을 맞잡는 남북 탁구 선수들이 합동 훈련으로 우승을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16일 대전 한빛체육관. 오전 9시가 조금 넘자 남북 선수단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김택수 남자팀 감독과 안재형 여자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선수들이 먼저 입장했고, 주정철 북한탁구협회 서기장을 필두로 한 북한 선수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20여분 뒤 선수단은 남북이 아닌 남녀로 나뉘었다. 감독들로부터 훈련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본격적인 합동 훈련이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 남자 복식을 함께할

이상수(상무)-박신혁(북한) 조는 조승민(삼성생명)-리광명(북한) 조를 상대로 호흡을 점검했다.

여자복식 서효원(벅츠런)-김승이(북한) 조도 선을 보였다. 수비 전형의 이들은 급조된 복식 조 중 입상권에 가장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 여자 단일팀 멤버였던 두 선수는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뉴시스

윌블던 우승 조코비치 “좌절이 있었기에 특별한 결과”

“다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 좌절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더 특별하다.”

2018 윌블던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부문 우승자 노바 조코비치(31·세르비아·10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조코비치는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윌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케빈 앤더슨(32·남아공·5위)을 3-0(6-2 6-2 7-6(7-3))로 물리쳤다.

2011년, 2014년, 2015년 대회에 이은 3년만의 개인 통산 4번째 윌블

던 대회 우승이다. 이날 경기로 조코비치의 세계랭킹은 기존 21위에서 10위로 급증 뛰었다.

이로써 그는 13번째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거머쥐며 남자 테니스 선수 중 네 번째로 많은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됐다. 로저 페더러(37·스위스·2위)의 20회, 라파엘 나달(32·스페인·1위)의 17회, 그의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피트 샘프라스(미국)의 14회에 이은 대기록이다.

그는 “세계 최고가 되고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며 윌블던 대회에서의 우승에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만약 한 달 전엔 나에게 윌블던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면 나는 그 당시 내 실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이 것(윌블던 우승)은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 넣고 남은 경력을 위한 도약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